

## 정치·정책 결정 과정서 목소리 키우는 역만장자들에 대한 본격 프로파일링



부자들은 왜-

대럴 M. 웨스트 지음

“난 30억 달러를 벌었소. 당신들은 뭐 했소?” 2013년 뉴욕 시장 선거에 출마한 식료품업체 레드애플그룹 회장 존 개치마티디스는 이 슬로건을 내세워 경쟁자에게 비아냥거렸다.

역만장자들은 경제뿐 아니라 정치와 문화 심지어 자신 활동 영역까지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물론 그들이 세상에 기여한 부분도 적지 않다. 기술 혁신과 새로운 상품 개발로 인류의 삶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나 재력을 이용해 국가의 정책 결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해 민주주의를 훼손하기도 한다.

정치 권력 독점을 노리는 역만장자들의 활동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책이 나왔다. 세계적으로 영향력 높은 싱크탱크인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의 실장을 맡고 있는 대럴 M. 웨스트가 펴낸 ‘부자들은 왜 민주주의를 사랑하는가’는 역만장자들에 대한 본격 프로파일링이다. 반어적인 책 제목 ‘부자들은 왜 민주주의를 사랑하는가’는 미국의 유머에서 차용한 듯 하다. ‘역만장자

는 집 내재, 요트 두척, 비행기 한 대, 정치인 다섯 명을 소유하고 있다.’

저자는 역만장자들을 오랫동안 지켜본 경험과 방대한 자료를 통해 그들이 사회에 야기하는 문제와 금권정치화 현상을 비판적으로 해부한다. 물론 역만장자도 원하는 정치 활동의 자유가 있고 자신 기금의 구체적 용도를 지목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전제조건이 있다. 절차와 정보의 개방성이 담보돼 시민들이 이들의 활동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별 게이츠와 같은 큰 부자가 되는 데는 창의적 주도력, 비전, 성실성, 시기 포착 등 개인적 요소 외에도 교육의 기회, 인맥, 정부의 지원, 공공 정책과 인프라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부를 물려받지 않고 자수성가했다는 사람들조차 그 과정에서 사회와 국가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는다.

저자는 역만장자들의 정치 활동으로 부유층 세금 감면과 건축 정책이 현실화하면 저소득층과 중산층 삶의 개선은 요원해진다고 본다.

그로 인해 전반적인 경기 침체와 양극화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민주주의 안정성을 위해 투명성 제고와 의회의 범위 개정, 소득 불평등에 대한 인식 변화, 공정한 조세 정책, 기회 다원주의가 필요하다는 논리적 프로파일링이다. 반어적인 책 제목 ‘부자들은 왜 민주주의를 사랑하는가’는 미국의 유머에서 차용한 듯 하다. ‘역만장자

<원더북스·1만7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 ‘돈키호테’에 내재된 숨은 메시지 들춰보기



돈키호테를 읽다

안영욱 지음

근대 소설의 효시이자 풍자소설의 백미로 일컫는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를 다각도로 조명한 해설서가 출간됐다. 사실 고전 가운데 ‘돈키호테’처럼 폭넓게 읽히는 책도 드물다. 인생 경험과 독서 수준에 따라 다른 의미와 즐거움을 선사하는 작품이기 때문이다.

‘돈키호테’ 번역가이자 연구자인 안영욱 고려대 스페인어문학과 교수가 펴낸 ‘돈키호테를 읽다’는 작품 속에 내재된 숨은 메시지를 세밀하게 들여다본다. 저자는 세르반테스의 삶과 시대를 검토하는 것에서 나아가 패러디와 암시 속에 가려진

작가의 의도와 미학까지 깊숙이 파고든다. 해설서는 모두 2부로 구성돼 있다.

1부에서는 ‘돈키호테’에 대한 기존의 평가와 작품의 구조를 밝히며 작품 내용을 요약 해설한다. 독자들은 미술적 사실주의, 독자의 조대와 작가의 실존 등 현대 문학에서 나타난 ‘돈키호테’의 혁신적인 요소들을 두루 살필 수 있다.

2부에서는 세르반테스가 숨겨 놓은 메시지를 테마별로 밝힌다. 작가는 왜 미친 편력 기사를 주인공으로 내세웠는가? 그의 세 번의 출정과 귀환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왜 그는 광인 돈키호테가 아닌 제정신으로 돌아온 알론소 키하노(본명)로 죽음을 맞이하는가? 저자는 기존의 독자들이 읽은 ‘돈키호테’는 빙산의 일각이며 당대의 현실과 작가의 독서 목록 등을 함께 살펴봐야 참맛을 느낄 수 있다고 강조한다.

<열린책들·1만8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 ‘인공지능’ 로봇, 당신의 일자리 노린다

### 로봇의 부상

마틴 포드 지음



로봇의 부상

마틴 포드 지음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공학 교수인 베로코 코슈네비스는 24시간 만에 집 한 채를 지을 수 있을 정도로 거대한 3D 프린터를 제작 중이다. 이 프린터는 건설 공사장에 설치된 임시 레일을 따라 움직이면서 거대한 노즐을 이용해 컴퓨터의 지시에 따라 콘크리트 층을 쌓아 올린다. 공정은 완전히 자동화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세운 벽은 기존의 기술로 세운 벽보다 상당히 견고하다.” (본문 중에서)

얼마 전 인간과 인공지능간의 세기의 대결이 펼쳐졌다. 구글 딥마인드가 개발한 인공지능 알파고와 한국의 이세돌이 벌인 바둑 대결은 전 세계의 관심을 끌었다. 알파고의 승리로 끝난 결과는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겼다.

인간과 인공지능의 최초의 대결은 1997년 체스를 두고 벌어졌다. IBM의 슈퍼컴퓨터 딥블루는 당시 대결에서 세계 체스 챔피언을 제압했다. 마찬가지로

2011년 퀴즈쇼에서는 인공지능이 인간을 이겼다.

우주의 원자만큼 변수가 많은 바둑에서 인공지능이 인간 두뇌를 꺾은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일찍이 천재 수학자 앨런 튜링이 머잖아 진정한 사고력을 갖춘 기계가 나올 거라던 예언은 기정사실이 되었다.

작금의 인공지능의 진화는 눈부시다. 아마존이 드론을 이용한 배송 업무를 이야기하고, 자동차 업계는 무인자동차의 실현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과연 인간처럼 사고하는 인공지능의 등장은 향후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실리콘밸리 성공한 사업가이자 소프트웨어 개발자인 마틴 포드가 펴낸 ‘로봇의 부상’은 인공지능의 현주소와 경제 활동에 미칠 영향을 상세히 그려낸다. 책은 포브스 선정 2015년 최고의 경영서,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에 랭크될 만큼 선풍적 인기를 끌었다.

“로봇이 당신의 일자리를 빼앗기 전에 어서 이 책을 읽어라”는 책표지 경고문이 예사로 보이지 않는다. 저자는 인공지능은 모두에게 변명을 안겨주지 않는다고 단언한다. 노무직이던 사무직이던 많은 이들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고 예상한다. 더 암울한 것은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아도 계층의 사다리를 타고 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전망이다.

제조업이나 단순 직종만 타격을 입는 것은 아니다. 인공지능이 기계 학습, 더 라우드 컴퓨팅을 기반으로 인간보다 더 뛰어난 사고력을 갖추면 ‘인간만이 가능하다’고 여겼던 일자리도 뺏겼다는.

지금까지 글을 쓰는 일은 인간 고유의 영역이라고 생각해왔다. 그러나 저자는 기사 작성 소프트웨어가 데이터를 토대로 스포츠, 비즈니스, 정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미 자동화된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고 말한다. 또한 이러한 기술은 일반 기업의 데이터를 정교하게 분석해 보고서 작성하는 역할까지 넘볼 거라고 내다봤다.

일례로 IBM의 왓슨과 같은 로봇은 방대한 데이터를 짧은 순간 읽어내고 답을 추론할 줄 안다. 이러한 기술은 수많은 임상시험이나 연구 관독을 바탕으로 의료산업이나 금융업, 콜센터 등의 일자리를 빼앗을 가능성이 있다.

불과 10~15년 전만 해도 인터넷 시대가 열

리며

프로페서

널로 대접받던

IT업계 전문가들도

설 자리가 불안해진다.

다수 기업들이 중앙집중화된 허브

를 이용해 수만 개의 서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

이다.

그렇다면 급속도로 진화하고 있는

인공지능에 맞설 대안은 없는가. 저자

는 기본소득 보장제도를 제안한다.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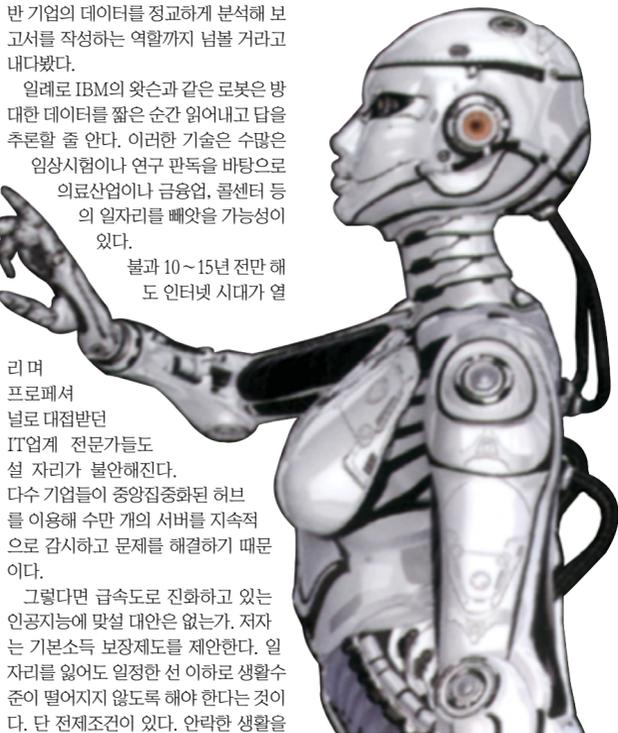
자리를 잃어도 일정한 선 이하로 생활수

준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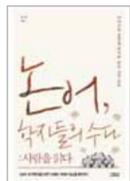
다. 단 전제조건이 있다. 안락한 생활을

누리지 못하는 먹고살기에는 충분해야 한다. 한마디로 근로 의욕을 꺾어서는 안 되며 생산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세종서적·2만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 공자의 대표적 제자 12명의 삶 재구성



논어, 학자들의 수다

김시천 지음

지금까지 다양한 얼굴의 ‘논어’들이 나왔다. 동양 고전으로, 자기계발서의 원형으로 ‘논어’는 누구의 시선으로 읽어 전

달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빛깔로 다가온다. 김시천 송실대 철학과 초빙교수가 펴낸 ‘논어, 학자들의 수다’는 성인의 어

록을 넘어 ‘나를 찾는’ 고전 읽기에 초점을 둔다.

책은 개념 중심으로 접근해 ‘논어’를

독해하는 대신 공자의 대표적 제자 열두 명의 삶을 재구성한다. (‘논어’에는 제자만 해도 29명, 공자나 그 제자가 아닌 사람들이 125명 등장한다.) 그로 인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서 찾은 개념들이 다시 보일 뿐 아니라, 제자들이 스승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관점을 만들어가고 성장해가는 모습이 드러난다.

“수다는 결코 의미 없는 헛소리나 잡담이 아니에요. 오히려 수다는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드러내는 중요한 형식이기도 하죠. 이 책은 ‘논어’에서 공자와 그의 제자들이 나누었던 이야기들을 철학적 대화나 학문적 토론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표현하는 이야기로 읽고자 했어요.” <더퀘스트·1만6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 차이코프스키 등 작곡가 16명의 작품 이야기



힐링 클래식

김강하 지음

‘백조의 호수’ ‘호두까기 인형’으로 친숙한 러시아 작곡가 차이코프스키는 늘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해 고민했다. 러

시아 정교의 도덕이 지배하던 19세기에 동성애 성향을 지니고 사는 건 고행이었다.

그러던 어느날, 한 처녀가 “당신께 드리는 사랑을 다른 어느 남자에게서도 느낄 수 없다”고 고백하자 차이코프스키는 그

녀와 결혼하기로 결심한다. 하지만 두 사

람의 결혼은 기대만큼 행복하지 않았고 사랑의 열병을 구해낸 아내의 모습은 그의 오페라 ‘에브게니 오네긴’의 여주인공 타치야나에 고스란히 스며들었다.

KBS 클래식 음악 구성작가로 30년간 방송을 진행해 온 김강하씨의 ‘힐링 클래식’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작곡가들의 작품, 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작품에 얽힌 비하인드 스토리를 묶은 에세이다.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을 음악으로 극복했던 베르디, 빗쟁이들을 피해 야반도주를 해야 했던 바그너, 그리고 순수한 사랑을 찾지 못해 비통함 속으로 잠잠했던 차이코프스키 등 작곡가 16명의 이야기는 음악 못지 않게 적잖은 위로로 준다. <민음사·1만8000원>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가발

시술전 시술후 시술전 시술후

국무총리상 표창·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상 표창·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신제품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신가2층  
대표전화 :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체 010-3600-9955

NAVER 주소(D) 대신프리모

대산프리모가발

現)BLVD HOTEL 서울 영등포 로터리 신축 호텔

매매 교환

15층 81실  
임대완료(성업중)  
보증금 10억, 월세 7500만원

- 시행사 직접매매
- 매매가 165억원(조정가)
- 교환가능(토지, 건물 등)
- 직영가능

담당자 : 조승정 상무 010-7624-8822